

후타쓰모리 패총

아오모리현 오가와라 호수에서 서쪽으로 수 km 떨어진 후타쓰모리 패총이 있는 자리는 기원전 3,500 년~기원전 2,000 년에 걸쳐 여러 마을이 존재했던 곳입니다. 이 유적 곳곳에서는 150 여 개의 수혈식 건물 터와 여러 패총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유적에는 수혈식 건물 2 채가 복원되어 있으며 사슴뿔로 만든 장신구 등의 출토품은 인근의 후타쓰모리 패총관[링크]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마을의 규모와 배치

패총을 내려다볼 수 있는 주차장 근처 전망대에는 마을의 배치를 나타낸 안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후타쓰모리 패총 마을은 상당히 규모가 큰 마을로 무덤지, 모은 식량을 저장하는 구멍, 패총과 함께 토기나 석기 등의 도구를 폐기하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환경이 변화한 증거

기원전 3,900 년경 후타쓰모리 패총은 커다란 만을 내려다보는 위치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세기에 걸쳐 해수면이 낮아지고 해안선이 물러나면서 원래 만이었던 장소는 기수호(바다와 연결되어 바닷물과 강물이 섞인 호수)인 오가와라 호수로 변했습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패총에 쌓인 조개껍데기의 종류와 분포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층에는 굴이나 대합 외에도 기타 해양성 조개류의 껍데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 상층에는 기수재첩(일본재첩) 등 기수역에 사는 조개류의 껍데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활동

또한 패총에는 물고기, 백조, 오리, 사슴, 멧돼지 등 동물의 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 마을의 사람들이 조개류의 채집 뿐만 아니라, 사냥과 낚시로도 식량을 구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밤을 보존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던 저장 구멍이 발견된 것은 사람들이 숲에서도 식량을 구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관련 유적

일본 북부에서 이와 비슷한 마을 터는 산나이 마루야마 유적[링크](아오모리현), 고쇼노 유적[링크](이와테현), 오후네 유적[링크](홋카이도)에서 발견되었습니다.